타이완 차 문화 답사
1 타이완 차의 어제와 오늘
② 세계시장 넘보는 타이완 차
③ 타이완 차문화에서 배운다

역사 짧아도 제다 기술 눈부신 '진보'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생산되는 타이완 고산차는 특유의 향과 맛으로 전 세계 차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사진은 리산(梨山) 지역에 조성된 다원 전경.

불과 300~400년 전에 시작된 타이완의 차문화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 차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 선정된 세계 10대 명차 중 타이완 동정오룡과 문산 포종, 목책 철관음, 동방미인 등이 상위권에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타이베이 시내에 자리 잡은 차 가게의 경우 손님 3분의 1 정도가 일본 · 한국 관광객인 실정이다. 중국차가 연일 중금속 과다 검출과 제다 과정의 불결함 등으로 오명을 떨치는 것과 달리 타이완은 천혜의 자연조건과 엄격한 품질관리로 세계 차 시장을 넘보고 있다. 동아시아 차계의 다크호스로 떠 오른 타이완.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타이완 차문화 현장을 찾았다. 그 현장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 타이완 차문화의 오늘

타이완은 중국 푸젠성(福建省) 광둥성(廣東省)과 함께 세계 3대 오룡차 생산지로 꼽힌다. 우리나라 경상남 · 북도를 합쳐놓은 크기인 3만 6179㎢ 면적에 2,200만명의 인구를 가진 타이완은 국토 면적은 작지만 제다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느 나라보다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연간 15만여 톤의 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1인당 차 소비량은 연간 1,650g 정도다. 타이완에서 생산되는 차는 대부분 고가(高價)로 일본과 영국, 네덜란드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때문에 중국 푸젠성이나 베트남 등에서 많은 양의 차를 수입해 재가공,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내 차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타이완 차와 역사

1697년 야생차나무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 타이완에는 17세기 이전부터 차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차

대부분 고가 수출, 국내 소비량 증가 추세
푸젠성 사람들 정착하며 차 재배 본격화
상쾌한 향, 순한 맛 '동정오룡' 세계적 명성

산업은 1796년 푸젠성 사람들이 타이완에 정착하면서 무이산(武夷山)에서 차 품종을 가져와 현재의 대북현(臺北縣) 서방(瑞芳)지구에 심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1855년에는 청심오룡(青心烏龍) 묘목을 동정산(凍頂山)에 심어 오늘날 동정오룡차(凍頂烏龍茶)의 기원이 됐으며, 복건성 안계(安溪)에서 철관음차(鐵觀音茶) 품종을 들여와 대북시 목책(木柵)에 심은 것이 목책철관음차(木柵鐵觀音茶) 생산의 근원이 되었다. 처음에는 오룡차가 주로 생산됐고 이후 타이완 특유의 포종차들이 나타나게 됐다.

이처럼 타이완에서 차 재배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천혜의 자연조건에서 찾을 수 있다. 아열대기후의 북부지역과 열대기후의 남부지역은 모두 연평균기온이 20℃를 넘고 연간 평균 강우량은 2,515mm로 차 재배에 매우 적합하다.

특히 해발 1,000m가 넘는 고산지대의 경우 일교차가 크고 아침저녁으로 운무(雲霧)가 많다. 자연히 일조량이 적어 쓰고 떫은 맛을 내는 카테킨 함량은 낮고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의 함량은 높다. 또한 찻잎이 부드럽고 육질이 두꺼워 향과 맛이 풍부한 특징을 가진다.

▶ 대표적인 타이완 차

타이완차는 크게 동정산에서 재배되는 동정오룡차와 리산(梨山) 아리산(阿里山) 등에서 생산되는 고산차, 특유의 향과 맛으로 사랑받고 있는 동방미인, 목책지구의 철관음 등이 유명하다.

특히 동정오룡은 타이완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차로, 타이완 중부의 동정산 산허리에 펼쳐진 루구상(鹿谷鄕) 일대가 주요 산지다. 150연 년 전 푸젠성에서 이식된 묘목이 그 시초로, 이곳에서 재배된 차가 중국 본토에서 생산된 것보다 발효도가 낮다. 때문에 상쾌한 향기를 내며 황금색 탕색에 부드럽고 순한 맛이 난다.

타이완 고산오룡차란 해발 1,000m 이상 다원에서 생산되는 찻잎으로 만든 반구형 포종차를 말한다. 주로 지아이 난토우 타이똥 등에서 생산되며 대부분 경발효차로 아리산 위산 쉐산 중양산 타이똥산 등의 고산 지역에서 생산된다. 고산차는 생산되는 지역의 산 이름을 따 옥산차, 매산차, 무사차, 노산차, 이산차 등으로 부른다.

일본과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사랑받고 있는 동방미인은 발효도가 70% 정도로 높다. 백호오룡(白毫烏龍) 또는 팽풍차(膨風茶)로도 불린다.

타이완에 진출한 영국 회사에 의해 1868년 마카오에, 이듬해는 미국으로 수출됐다.

포종차는 발효도가 7~20% 정도로 낮은 차를 일컫는 말이다. 수종(樹種)은 주로 청심오룡을 많이 사용하며 문산 포종차는 잎이 길이대로 말린 형이고 동정 포종은 둥글게 말아진 형태다. 찻물은 황금색이며 향이 단아한 꽃향이 난다. 찻잎의 활성이 좋고 감미로운 향을 낸다.

타이완 차는 여느 차 생산지와 마찬가지로 봄철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추석 후 1주일 정도까지 생산되는 동차(冬茶)가 그 다음을 잇는다. 그러나 가격은 동차가 춘차에 비해 1.5배 정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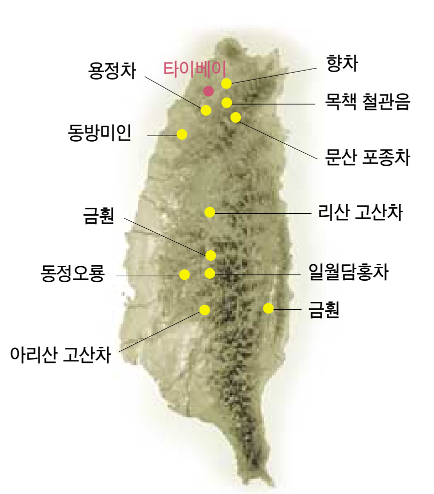
다음 호에는 대표적인 타이완 차 생산 다원과 생산 공정 등을 살펴본다.

글 · 사진/타이완=여수령 기자

온화한 기후의 타이완은 11월까지도 동차(冬茶) 수확에 한창이다.

문산 포종차 고향인 평림(坪林)에 세워진 평림 다업박물관 전경.

■ 타이완 주요 차 산지와 종류



조선시대 ㉕

국제 교류 잦아지며 서양 음다생활 소개
문일평 다고사 남겨 우리 다사에 큰 공헌

국제간의 교류가 잦아짐에 따라 서양인들의 음다(飮茶)생활도 소개되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의 차를 수입하면서 차의 재배에 관심을 가지고 묘목을 수입하기도 했다. 대외적 의식이나 조정의 행사, 사찰의식에서 차를 쓰면서 차의 생산을 소홀히 하는 정부에 대해 미국공사 딘스 모어가 차 재배를 권유하기도 했다.

시대적 상황으로 당시에 다화회(茶話會)라는 차모임이 많았고 문일평 같은 선각자가 나와 다고사(茶故事)를 남겨 자료가 희소한 우리 다사(茶史)에 크게 공헌했다.

중국도 개혁적 사상의 문인이자 차인인 노신이 등장하고 중국 근대 차발전에 공적을 남긴 오각농이 출생했다. 일본은 왕정복고 이후 얼마 동안 다도가 퇴조하는 모양이었다.

① 김원식이 청(淸)의 북양대신(北洋大臣) 이홍장(李鴻章)과의 회담 내용에 조선 차의 재배와 해외수출 문제를 포함했다.

② 천진군기소의 총판 유향림과 다업진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③ 농상사(農商司)에서 차 재배 업무를 맡아 정부에서 장려했다.

④ 고종 21년에 일본차를 상당량 수입했다.

⑤ 청국에서 차의 모종 6천 그루를 수입해서 심다.

⑥ 청국의 안휘성으로부터 육안차(六安茶)의 차씨를 수입했다.

⑦ 서울에 있던 미국 공사 딘스 모어가 차 심기를 권장했다.

⑧ 문일평은 〈호암전집〉 안에 〈다고사(茶故事)〉를 써서 우리 차에 관한 귀중한 자료가 된다.

⑨ 오효원(1889~?): 시 470여 수를 담긴 〈소파여사시집〉 안에 다시 6편이 전한다.

⑩ 이즈음에 오면 정부의 고급 관리들이 다화회를 자주 가진다. 이는 외국 사람들의 티파티를 모방한 새로운 다회 형태였다.

⑪ 박영희(1892~1990): 초의의 맥을 받았다는 응송(應松) 스님이다. 한국의 전통차 보급에 애썼고 〈동다정통고(東茶正統考)〉를 썼다.

⑫ 오치보(1847~1929): 근대 다상으로 가업을 이어 전차를 주로 만들어 이름을 얻었다. 북경을 중심으로 수많은 점포를 두고 많은 자산을 모아 공익사업을 했다.

⑬ 유순경(兪洵慶)이 쓴 글로 차의 공(功)에 관해 썼다.

⑭ 좌종당(1812~1885): 군기대신을 지냈으며 그의 글에는 청대 다법 연구에 유용한 자료가 많다.

⑮ 노신(1888~1936): 문학자로 혁명적 사상을 펼쳤다. 차를 아주 즐겨 일생을 차의 정신으로 산 문인이다.

⑯ 오각농(1891~1988): 현대 다학 전문가로 일본에서 다업시험장에 근무하고 돌아왔다. 중국차 발전을 위해 교육기관을 세우고 외국 다업을 돌아봤다.

⑰ 조의(趙懿)가 쓴 것으로 몽정차(蒙頂茶)에 관한 것이 들어있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조선시대	1881 김윤식 회담 ①	청대		강호시대	
	1882 유향림과 회담 ②		@ 오치보(吳熾甫)의 활동 ⑫		
	1883 차나무 재배 장려 ③				1883 다업조합 결성
	1884 일본차 수입 ④		1884 〈하랑필기(荷廊筆記)〉 ⑬		
	1885 차 모종 수입 ⑤		1885 차세에 관한 좌종당左宗堂)의 글 ⑭		
	1886 육안차 수입 ⑥				
	1887 미국공사 차 재배 권장 ⑦				
	1888 문일평(文一平)의 출생 ⑧				
	상해에서 차 수입		1888 노신(魯迅)의 출생 ⑮		
	1889 오효원(吳孝媛)의 출생 ⑨				
	@ 다화회 성행 ⑩				
			1891 오각농(吳覺農)의 출생 16		
	1892 박영희(朴暎희) 출생 ⑪		1992 몽정다설(蒙頂茶說) 17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1회 특별 법회는 2003년 12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간, 티베트 망명정부가 자리하고 있는 다람살라 남걀 사원에서 있었습니다. 이 특별 법회의 의미는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달라이라마께서 한국 불자에게 하신 최초의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한국 불자와 달라이라마의 만남은 많았습니다. 거의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회는 달랐습니다. <입보리행론>을 교재로 삼아, 제1장 보리심 공덕 찬탄품부터 제4장 보리심 불방일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달라이라마께서 그 의미를 짚어가며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경전 속 활자에 불과했던 샨티데바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샨티데바의 가르침에 달라이 라마의 숨결이 더해지면서 <입보리행론>은 수행 지침으로 되살아 난 것입니다. 2004년 10월 델리에서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2회 특별 법회가 봉행되었습니다. 나흘간 진행된 이 법회에서는 <입보리행론> 제5장 호계정지품부터 제8장 선정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 2회 특별 법회 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제안으로 제2장 죄업 참회품을 독송을 하던 순간, 강당을 가득 메웠던 낭낭한 독송 소리는 조용한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티베트 학승과 티베트 불자까지 젖어들은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오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가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매번 법회를 시작할 때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법음을 열어갑니다.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은 우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며, 신행의 목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입보리행론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꽃인 '보살의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보리행론>은 총 10장 – 제1장 보리심 공덕품, 제2장 죄업 참회품, 제3장 보리심 전지품, 제4장 보릭심 불방일품, 제 5장 호계정지품 제 6장 인욕품, 제7장 정진품, 제8장 선정품, 제9장 지혜품, 제10장 회향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샨티데바의 <입보리행론>은 티베트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여러 종의 번역본과 종파 별로 수많은 주석서가 있습니다. 10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아주 쉽게 전달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행사 일정

A팀 : 12월10일 – 19일(10일간) –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20만원)
인천–델리–다람살라–델리–인천

B팀 : 12월 3일 –18일(16일간) – 불교성지순례와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65만원)
인천–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기원정사–다람살라(법회)–델리–인천

• 장 소 :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
• 주 관 : 여수 석천사 (진옥스님 061–662–1607)
※ 참가신청 및 문의 : 본 행사는 법회진행비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 월 정 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